[지원동기]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약 99.7%가 바다를 통해 운송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항해사는 단순히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 물류와 고객의 신뢰를 책임지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실습 항해사 시절 선내 블랙아웃을 경험하며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과 경보음에 당황했지만, 선장과 사관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했고 선박은 빠르게 정상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를 넘기는 힘은 순간의 기지가 아니라, 평소 자기 역할을 몸에 익혀 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침착함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화물칸에 쌓인 짐을 볼 때마다 그것이 누군가의 행복과 일상, 그리고 신뢰가 담긴 약속이며 그것을 책임지는 항해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지해운은 정직으로 신뢰를 쌓고 성실로 책임을 다하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에 부응하여 실습항해사 시절 배운 메뉴얼에 대한 고집과 성실함의 힘으로 고객의 행복을 끝까지 책임지는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새롭게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제 계획을 기꺼이 내려놓고, 방법을 새롭게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필리핀과 미얀마 해외봉사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한글 창제 원리와 자음·모음을 중심으로 수업을 준비했지만, 시연 과정에서 학생들의 언어와 수준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동료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업을 전면 수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콘텐츠에 착안해, 둥글게 둥글게 노래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표현을 접목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노래와 동작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히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경험은 좋은 결과가 내 생각을 고집할 때가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배움으로 필요할 땐 분명히 제 의견을 내되 동료의 조언 앞에서는 늘 귀를 열어 두고 늘 해 오던 방식이라도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길이 있다면 먼저 고민하고 제안하는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산업 흐름을 읽고 미래 요구 역량을 능동적으로 확장하는 자세]
선박관리 산업은 환경규제 강화, 연료 전환, ESG 요구 증가, 디지털화·자동화 기술 확산 등 변화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산업 변화 속에서 항해사가 단순히 운항 능력만 갖추는 것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산공유대학 BTIS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AI·IoT·블록체인 기반 물류 혁신 전략을 학습하며 공급망 통합, 자동화 운영체계 등 글로벌 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를 폭넓게 이해했습니다. 또한 해운·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 흐름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해주었고, 변화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확장하는 것이 미래 항해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선박 위에서도 늘 배움을 갈망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항해사로 동지해운에 기여하고 싶습니다.